여성불자 위한 러시아 유일 사원

부랴트 공화국 슌곤 사원… 달라이라마 권유로

점점 불자가 늘어나는 러시아에서 여성불자들만을 위한 사찰이 눈길을 끈다. 2월 24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러시아 울란우데에 있는 유일한 여성 수행자 전용 사찰인 '슌곤 다르잘링 다찬' 사원을 특별 보도했다.



슌곤 다르잘링 사원에서 예불을 드리는 여성 수행자들. 사진출처=러시아 스마트뉴스

러시아 동부 부랴트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에 소재한 '슌곤 다르잘링 다찬' 사원은 러시아 유일의 여성 수행자들을 위한 사찰이다. 부랴트 공화국의 여성불자 대표인 다리마 삼부예나에 따르면 1992년 부랴트 공화국을 처음 방문한 달라이라마가 "부랴트 주민들의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불교의 여성 중심지를 건설하라"고 권유한데서 여성 수행자들의 사원 건립을 서원했다.

1995년 부랴트 정부와 불자들의 지원으로 울란우데에 착공을 시작한 사원은 3년 뒤 먼저 작은 법당급인 두간(dugan) 사원으로 시작했다. 여성들을 위한 법당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많은 여성불자들이 모이는 계기가 됐다. 1999년엔 이곳에 모인 일부 여성불자들이 부랴트의 출가승단을 이끄는 옐로 린포체를 법주로 사미니계를 받았다.

이러한 활동에 고무되어 마침내 2000년 7월 1일, '흥성하는 여성 승원'이라는 뜻의 '슌곤 다르잘링 다찬'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개원했다. 전통적으로 사원에 '다찬'이라는 이름이 붙는 곳은 강원과 강사가 상주하는 승가대학급 사찰을 말한다.

현재 슌곤 다르잘링 사원에서 예불은 사원 외부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 수행자들이 집전한다. 사원 측은 "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가정의 보호자이자 사회적 평화의 보호자인 여성들의 영적 활동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불자뿐만 아니라 성별, 나이,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방문객들을 위해 열려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인골로 만든 티베트 법구 특별전

대영박물관 "청정 · 부정 없는 공양의 상징"

영국 대영박물관이 인골로 만든 티베트 밀교 법구를 특별전시한다고 밝혀 화제다. 지난 2월 23일 영국 유력지 '가디언'은 대영박물관에서 인골로 만든 티베트 밀교의 다양한 장엄구와 법구들이 전시된다고 전했다.이번 전시에서 공개되는 유물들은 두 개의 두개골을 맞대어 만든 북인 다마루(Damaru), 대퇴골로 만든 나팔 캉링(Kangling), 두개골로 만든 의식용 잔인 카팔라(Kapala)와 인간의 뼈를 조각해 만든 장엄용 예복인 루갠(Ru gyan) 등의 밀교법구들이다.



두 개의 두개골을 맞대어 만든 북 다마루(Damaru). 사진출처=가디언

전시회 담당 임마 라보스 큐레이터는 "이러한 유물들은 밀교수행이 어떻게 삶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준비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상징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죽음을 긍정한다는 데에서 죽음을 허무주의와 부정으로 보는 서양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베트의 인골 법구들은 불교에서 죽음을 명상하는 백골관과 무상관이 밀교적으로 발전한 결과로 보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인간 유해 사용을 연구하는 아이샤 푸엔테스 박사는 "근대 서양 선교회들의 악의적인 기술로 인해 인골을 사용한 법구와 의례들이 악마숭배와 사악한 주술이라는 오명을 안아왔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밀교 수행에서 인간의 유해는 청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지 않는 공양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골법구를 위한 인골은 살아생전 청정하게 계율을 지킨 수행자나, 덕이 높은 고승의 유골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또 일부 수행자들은 사후 자신의 몸을 법구로 만들어 줄 것을 유언 하는 경우도 있었다.

푸엔테스 박사는 "티베트 불교가 강조한 죽음과 무상의 중요성이 대중에 알려지고, 밀교에 대한 오해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삶의 마무리' 절에서 배워요

일본 사찰서 '종활' 교육 프로그램 늘어나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에서 '종활(終活)'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활동'이란 뜻의 종활은 사망에서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망라한다. 한편 이러한 종활을 사찰에서 배우는 모임이 생겨 화제다. 2월 21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사찰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종활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오사카 야오시에 소재한 일련종 혼쇼지(本照寺). 이곳에선 유언과 관련한 체크리스트 '유언백서'에 대한 강좌를 열고 있다. 참석하는 연령대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참가자들은 먼저 본당을 견학한 후 주지스님의 지도에 따라 유언백서를 작성한다.

강좌를 기획한 주지 미타무라 에이슈 스님은 "전대 주지스님이 돌연사를 한 것을 계기로 종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지난해 아내와 함께 유언백서를 설명하는 강사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죽은 이의 마지막 말로 생각해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그리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언이야말로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기는 가장 현실적인 문장"이라고 설명했다.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유언백서 작성은 사뭇 진지했다. 병으로 입원할 경우의 자산관리와 연명치료의 희망여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 남은 디지털 유품의 처리는 물론, 반려동물의 위탁소 등 가족에게 전하고 싶지만 쉽게 간과하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낸다. 여기에 스님의 세세한 설명과 충고가 더해진다.

30~70대 다양한 연령대 참가
스님 지도에 따라 유언서 작성
세세하게 체크리스트 적어가며
죽음에 대해 편하게 접근 가능

유언백서 작성이 끝나자 이번엔 에이슈 스님의 강의와 설명이 이어진다. 소개하는 내용은 장례식에서 행해지는 시식과 시다림, 죽은 후의 천도재나 묘지 선택, 기제사 등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의례다. 스님은 "사찰이기에 그 어떤 강사보다 자신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는 사찰이탈이 진행되면서 젊은 가장들이 집안 대대로 인연 지어온 사찰이나 종파를 모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에이슈 스님은 "실제 시다림 의식 중에 '대대로 해오던 의례가 아니다'며 친족들에게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사찰에서 가르치는 종활이 다시금 사찰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활카페에서 강의를 듣는 참가자들. 사진출처=산케이신문

한편 게임을 통해 종활을 안내하는 사찰도 있다. 오사카시에 소재한 정토종 오덴인(應典院)에선 매월 1회 '사찰 종활카페'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차나 커피를 마시며 종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종활카페에서 진행하는 '혹시나 게임'은 이곳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죽음과 관련된 상황이 쓰인 카드를 무작위로 뽑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다. 게임 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선 처음 참가했다는 40대 남성이 "어두워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밝은 분위기로,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후기를 남겼다.

게임을 진행하는 쿠마가와 사와코 종활강사는 "사찰은 본래 사생관을 말하는 장소다. 보통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지만, 모두 이곳에서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종활카페의 장점을 말했다. 카페를 기획한 아키타 코겐 주지스님은 "종활상담이야말로 본래 사찰의 역할이다. 종활은 지금까지 포교를 중심으로 한 사찰과 사회와의 관계성이 아닌 새로운 연결고리가 된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 젊은 여성들, 불교에 심취하다

사찰 내 좌선 · 사경체험에
20~30대 여성참가자 늘어
불교문화관련 유행이 배경

최근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이 불상을 좋아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불상을 넘어 불교 전반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월 20일 일본의 '야후 뉴스' '일간 겐다이' 등은 불교에 관심을 보이는 30대 여성들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사회에 최근 등장한 신조어 '어라운드 서티(around thirty)'란 30대에 가까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뜻한다. 아직 완전한 사회인으로 서지는 못했지만 결혼이나 취직 등의 현실문제에 직면한 세대를 이르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한편 이 세대들 가운데 특히 여성들이 불상이나 불교문화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간 겐다이'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매스미디어나 SNS 등을 통해 유행을 끌고 있는 주인(朱印) 수집이나 불상관람 등에 이끌려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외형적인 부분으로 접한 불교가 점차 내면적인 문화로 옮겨가는 추세인 것으로 일간 겐다이는 분석했다.



불교에 심취한 일본의 청년 여성들. 사진출처=야후뉴스

이러한 경향으로 최근 사찰에서 운영하는 좌선체험이나 사경체험 등의 프로그램에는 젊은 여성의 참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지 보는 것만이 아닌 직접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뷰에 응한 30대 초반의 여성은 "기본적으론 무교다. 그러나 불상을 좋아해서 사찰을 찾던 중 우연히 〈반야심경〉을 해설한 책을 읽게 됐다. 반야심경을 보고 마음속 고민이나 불안이 진정됐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응원가와 같았다"며 "종교로서의 불교는 진입장벽이 높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는 콘텐츠로써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후반 여성은 "기존의 종교라는 이미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교를 알고서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독신으로 살다보면 '여자로 태어났는데 어째서?'라는 식의 물음에 봉착하고 만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불교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일간 겐다이'는 이러한 경향과 인터뷰 등을 종합해 "자기 자신의 본질 내지는 삶의 방향성을 찾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스스로의 답을 찾으라고 가르치는 불교는 가장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지는 '내안의 부처'를 찾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젊은 층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영빈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